

“국책사업 제주 제2공항 정상추진해야”

학생이 바꾸는 학교공간 혁신 시작 도교육청 ‘민주주의 키움학교’ 5개교 첫 공모

도내 경제7단체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반대측 ADPi보고서 분석... 현 제주공항 활용 주장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상공인 및 건설인들을 중심으로 한 찬성측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상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현재 제주공항으로도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항,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상의를 비롯해 제주도관광협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경영자

총협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공항,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민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6월까지 계획돼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향후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 일정에 차질을 초래시키면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안전상정과 상임위원회 심사철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개정안은 관리보전1등급 지역 내에 항만과 공

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항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간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대통령과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으로 채택했고, 도의회 및 도민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가 부단히 요구해 어렵게 결정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연구했던 파리공항 공간 엔지니어링의 용역보고서(이하 ADPi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주국제공항 개선으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결국 필요도 없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해 ADPi 보고서를 은폐했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보고서 3안에 따르면 보조 활주로의 재활성화 및 교차 활주로의 결합 운용으로 2035년까지 예상되는 교통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2035년 제주의 항공수요 수치와 2045년 수치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제2공항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ADPi 원문보고서와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ADPi 보고서에는 ▷현행 주 활주로 활용 극대화 ▷평행활주로 신설 ▷교차로 활주로 공동 운영 등 제주공항 확충 관련 3안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입장문을 통해 “1안은 ‘제주공항인프라 단기 확충방안’에 일부 수용했다”며 “그러나 2안은 수요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는 부적절하고 3안은 이·착륙 항공기 간 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윤·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공간 혁신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 민주주의 키움 학교’ 공모를 진행해 이달 중 대상학교(5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 공간 민주주의 키움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공간 구성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공간 혁신 사업인 ‘꿈을 담은 교실(꿈담교실)’이나 광주시교육청의 학교공간 재구성 프로젝트인 ‘아지트(아·짹·트, 아이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새로운 시도(Try)를 해보자’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공간 민주주의 키움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민주공간으로 꾸미는 활동(도서관, 과학실, 학생회실, 기타 유희교실 등) 진행 등을 위한 운영비(교당 중 대상학교(5개교)를 선정할 예정 최대 1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획일적이고 운영자 중심이었던 학교공간이 학생 참여를 통한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돼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학교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감이 크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추후 학교공간 혁신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교육·건축·예술 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단위의 ‘학교공간혁신TF’를 조직해 학교현장 공간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국내 미기록 초소형 뽕나무인 프루너스 미니마 대규모 집단 자생지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곳은 기존 자생지 인근 해안가 암석지대로 자생지 전체 면적은 0.6ha이고 360여 개체가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미니뽕나무 대규모 자생지 발견

기존 자생지 인근 국내 미기록 초소형 360여 그루

제주에서 미니뽕나무 대규모 집단 자생지가 발견돼 자원화 연구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관)은 국내 미기록 초소형 뽕나무인 프루너스 미니마(미니뽕나무)의 대

규모 집단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니뽕나무는 2013년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연구진이 처음 보고한 미기록 뽕나무로 당시 10여 그루만 확인된 희귀한 나무이다. 이번에 발

견된 곳은 기존 자생지 인근의 해안가 암석지대로 자생지 전체 면적이 0.6ha이고 360여 개체가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니뽕나무는 다 자란 나무의 높이가 50cm 미만으로, 크기가 매우 작

저소득·다문화가정 부부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2019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부부로, 오는 31일까지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준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부부 1순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부부 2순위로, 최종 10쌍의 부부를 선정하게 된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고 꽃이 잎보다 먼저 피어 관광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미니뽕나무의 학술적 가치와 자원화 연구를 위해 자생지 일대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현화자 박사는 “이번 대규모 자생지 발견을 통해 미니뽕나무에 대한 추가 연구의 속도가 빨라지고, 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증식기술 개발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자연재해개선지구 신규지정 예고

서귀포시 성읍리~수산리 연결 서성로 일원

2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서귀포시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성로 지구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을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연장 8.7km, 면적 59만9834㎡ 구간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재해전문가 현장점검과 중앙부처 협의 결과 일부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 받았다.

이에따라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시행,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의 영향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다.

행정예고 기간중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시청홈

이지(시정소식)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우편 또는 팩스(760-314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성로 지구는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농경지 및 도로 등 9.1ha가 침수됐었고,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에는 9ha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된 바 있다. 또 2018년 4월과 9월에는 농경지 침수와 더불어 승마장 영업피해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태운기자 lty9456@ihalla.com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제+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AGRICULTURE DRONE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산주와 임업인의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산림조합
어린이가 웃으며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 산림조합
희망을 나누고 사회와 함께 하는 산림조합

2019 산촌마을가꾸기
맑고 푸른 제주 숲 조성에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 산림 소유자 또는 임업인 1구좌 이상 출자(1좌 5,000원) / 가입방법 : 주소지 또는 산림 소재지·사업장 조합에 가입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 /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지원 /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의 이차소독세 면제
가입문의 제주 시 산림조합 064)742-4883 서귀포시 산림조합 064)766-4541

sj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